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기획전시

차 한 도 전

Challenge,
Sailing
and
Great People

바다에
도전한
사람들





김승진 선장의 세계일주 항해 해도

전시를 열며

Opening the exhibition

바다는 오랫동안 도전의 대상이었다. 바다는 인류에게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는 도전의 의지를 갖게 했다. 선사시대에는 식량을 얻거나 이동하기 위해, 역사시대에는 교류·전쟁·무역 등을 위해, 그리고 현재는 산업과 레저를 위해 바다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바다에 대한 도전은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은 많은 이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번 국립해양박물관의 기획전시는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바다에 도전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전시를 통해 그들의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으며, 그 도전의 가치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공감할 수 있을 기원한다.

The ocean has been a challenge for a long time. Since the ocean is a fearful and unpredictable place for mankind, it has encouraged a willingness to overcome the challenge. For food procurement and migration in prehistoric times, for exchange, war and trade in historical periods and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leisure in nowadays, mankind's challenges to the ocean are continuing. The challenge to the ocean is dangerous enough to threaten human life. The success of those who haven't stopped challenging despite the danger gives impression and hope to many people. In celebration of the 22nd Marine Day, this exhibition at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presents the stories of great people who challenged the ocean. Through the exhibition, we hope you can empathize how difficult their challenges were and how resplendent their challenges ar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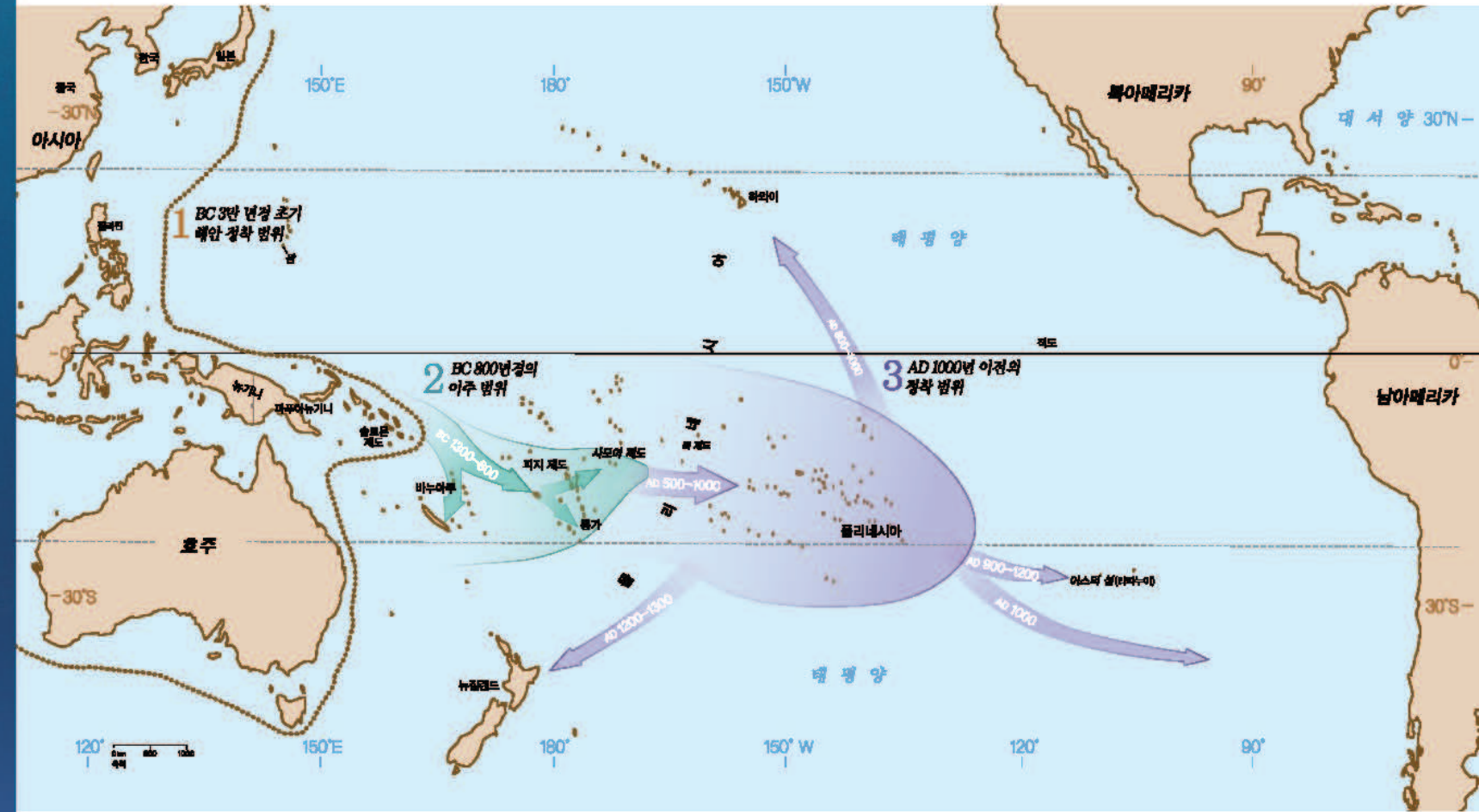
바다에 도전하는 사람들

The people
who challenge
the ocean

도전의 역사

왜 인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바다로 도전을 시작했을까?

인류가 먼 바다에 도전한 최초의 역사는 폴리네시아인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동남아시아에서부터 태평양의 여러 섬으로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우트리거 카누(Outrigger Canoe)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우트리거 카누는 길고 좁은 카누의 선체 옆에 물에 뜨는 얇은 부재(浮材)가 붙어 있으며, 삼각돛을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한다. 폴리네시아인은 이런 원시형태의 배로 타이완 일대에서 벗어나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뉴기니, 솔로몬 제도 일대에 정착하였고, 500년경에는 피지, 톤가, 사모아 일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이주는 800년경 하와이를 거쳐 1200년경 뉴질랜드 정착까지 이어졌다. 살기 위해서 새로운 농경지가 필요했던 폴리네시아인들은 속을 파낸 통나무배에 의존하여 태평양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도전을 했다.



폴리네시아인의 이동

The History of Challenge

Why did mankind begin to challenge the ocean, the unknown world? The first history of mankind's challenge to the far-off oceans began with the Polynesians. They had been scattered and settled in various islands from Southeast Asia to the Pacific Ocean through thousands of years, and this was possible by virtue of Outrigger Canoes.

The Outrigger Canoe is a long and narrow canoe with a triangular sail and thin, floating materials attached to the hull.

By using these primitive vessels, the Polynesians were able to leave Taiwan region and settle in New Guinea and the Solomon Islands around 1000 B.C., and they began to go into Fiji, Tonga and Samoa regions in about 500 A.D.

Their migration had continued through Hawaii in about 800 A.D. and into New Zealand in about 1200 A.D. The Polynesians, who needed new farmland to survive, challenged to navigate the Pacific Ocean by relying on dugout boats.



고대 _ 항해를 배우다

The Ancient Era _ Learn to sail

인류는 식량을 찾기 위해, 침략자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교역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호기심 충족을 위해 수평선 너머로 이동하였다. 최초의 배는 물에 뜨는 통나무를 단순히 엮은 뗏목의 형태였을 것이다. 거기에 노와 돛이 더해지면서 더 빠르고 멀리 다른 해안으로 이동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돛의 재질은 나뭇잎에서 가죽, 직물로 바뀌며 발전하였고, 배의 형태도 카누나 구조선으로 바뀌고 점차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파피루스 배(기원전 4,000년경)나 이누이트족의 카약(기원전 2,000년경)은 인류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바다에 도전해 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인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Mankind had traveled beyond the horizon to find food, avoid invaders, find new lands, trade with others, and simply to satisfy their own curiosity.

The first ship of humanity could be probably in the form of rafts which were simply made by tying logs of wood that float in the water. As paddles and sails were added, it became faster and enable to travel to other shores, catch fish, and transport people and goods.

Afterward, the material of sails improved from leaves to leathers and fabrics, the forms of vessels developed to canoes or fabricated ships, and the art of navigation had gradually improved.

Ancient Egyptian papyrus boat (about 4,000 B.C.) or Inuit kayak (about 2,000 B.C.) tells us how long mankind has challenged the ocean for. Mankind has not ceased to challenge the new world by overcoming the fear of the unknown world.



원시 형태의 뗏목

중세 _ 세상을 발견하다

마르코 폴로는 세계를 탐험한 후 그 기록을 책으로 발간하여 15세기 유럽 사람들에게 동양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신비한 동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며, 사람이 갈 수 없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디아스는 1488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희망봉을 발견했으며, 스페인을 출발한 콜럼버스는 1492년에 뜻하지 않았던 신대륙을 발견하였다. 이어 마젤란은 1519~1521년까지 빅토리아 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였다. 대항해시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도 이어 가세했다.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제임스 쿡은 3차례 걸친 항해를 통해 북극과 오세아니아 대륙 등 전 세계를 항해하고 항해기를 남겼다.



산타마리아호

The Middle Ages _ Discover the world

After Marco Polo explored the world, he published a book based on the records and gave a fantasy of the East to Europeans in the 15th century.

In order to pioneer the sea route to the mysterious East, Portugal and Spain challenged against the theory which argue that 'The end of the sea is cliff and it is inapproachable', and became the start of the Age of Great Voyage.

In 1488, Diaz in Portugal sailed through the Cape of Good Hope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and Columbus who departed from Spain discovered the unexpected new continent in 1492.

Afterwards, Magellan traveled around the world on the Victoria from 1519 to 1521. In the Age of Exploration, people's interests in exploring sea routes and discovering the New World had increased throughout Europe, and the Netherlands, France and England also joined the Great Voyage.

James Cook, a British man who made maps, sail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Arctic and Oceania, and published journals after three voyages.



콜럼버스의 항해

현대 _ 바다를 정복하다

The Modern Ages _ Conquer the ocean

대항해시대로 개척된 항로로 유럽은 막대한 부와 영토 확장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는 경쟁과 전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항해시대를 거치는 동안 선박은 많은 양의 상품을 나르기 위해 더 크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강하게 발전하였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증기 기관,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범선 대신 동력선이 바다를 누볐으며, 배를 만드는 재질도 나무에서 철강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의 선박은 모든 바다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되었다. 해저 수천 미터 아래까지 탐사할 수 있는 로봇과 잠수정, 극지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전진할 수 있는 쇄빙선, 바다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요트까지, 인류가 바다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As sea routes were pioneered in the Age of Great Voyage, Europe had achieved a global hegemony through enormous wealth and territorial expansion.

However, wealth and power are always attended by competition and war. During the Age of Great Voyage, the vessels became bigger and stronger in order to carry a large quantity of goods and to win the wars. Since a steam engine that is used to power a ship became available, power-driven vessels were widely used instead of sailing vessels, and the materials used in shipbuilding replaced with steel. Modern vessels are equipp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that are capable of exploring all the seas.

The scope of challenge to the sea is expanding day by day, from robots and submarines that can explore thousands of meters down on the ocean floor to icebreakers that can break through thick ice at the polar regions and yachts in which people can enjoy their leisure time at the sea.



쇄빙선 아라온호 (사진: 극지연구소 제공)

미래 _ 바다를 즐기다

The Future _ Enjoy the ocean

요트는 17세기 초 유럽 최대의 해양 국가였던 네덜란드의 '야크'라는 작은 배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왕실의 레저 스포츠로 저변을 넓혀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형 요트로 망망대해에 도전하였다. 영국의 치체스터 경은 세계 최초로 단독 요트 세계 일주를 226일 만에 성공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그 후 1960년 68세에는 대서양 단독 횡단 요트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70세에도 대서양 횡단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도전에 나이는 상관 없음을 보여주었다. 치체스터 경의 도전 이후 많은 요티(Yachtie: 요트 타는 사람)들이 세계 기록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A yacht is originated from a small boat called 'jacht' in the Netherlands, the Europe's largest maritime nation in the early 17th century, and it later expanded into a leisure sport for European royal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many people, have, challenged the boundless ocean with hope and courage with small yachts.

Sir Chichester in England is the first person in the world who sailed single-handed around the world in 226 days. His age was 65 years old at that time. In 1960, at the age of 68, he won the single-handed transatlantic yacht race, and participated in the race again at age 70, showing that a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hallenge. After the challenges of Sir Chichester, many Yachties have not stopped challenging the world record.



치체스터 경

도전의 기록을 만든 사람들



영국
로빈 녹스존스톤 Robin Knox-Johnston

세계 최초로 단독 무기항 논스톱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하였다. 수할리호를 타고 영국 콘월에서 1968년 6월 14일에 출발하여 1969년 4월 22일에 돌아왔다.

Robin Knox-Johnston(UK) was the first person to circumnavigate the world under sail solo and without touching at any harbor and Stopping. He departed from Falmouth, Cornwall, UK, on 14 June 1968 and returned to Falmouth on 22 April 1969 he was the only remaining competitor. His yacht was called Suhaili.



호주
케이 코티 Kay Cottee

여성으로 단독 무기항 논스톱 요트 세계 일주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퍼스트레이디호를 타고 시드니에서 1987년 11월 29일에 출발하여 189일간 항해하여 1988년 6월 5일 돌아왔다.

Kay Cottee(Australia) was the first woman to sail around the world solo and non-stop. She departed from Sydney, Australia, on 29 November 1987 in her 11m(36ft) yacht First Lady and returned there 189 days later on 5 June 1988.



프랑스
토마스 코비유 Thomas Coville

2016년 11월 6일, 선체가 3개로 된 요트 소데보4호를 타고 프랑스 브레스트항을 출발해 단독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항해를 시작한지 49일 3시간 7분 38초만에 출발지로 돌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트 세계일주 기록을 세웠다.

On November 6th, 2016, Thomas Coville(France) on his trimaran yacht, the Sodebo 4, departed from the port of Brest in the Bretagne region, France, and circumnavigated the Earth alone. He returned to the point of departure in 49 days 3 hours 7 minutes and 38 seconds, and successfully broke the solo round the world record.



한국
강동석 Kang Dong-suk

미국 UCLA에 재학 중이던 강동석은 1994년 1월 14일 요트 선구자2호를 타고 LA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인 최초 단독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뒤 1997년 6월 8일 부산으로 입항하였다.

Kang Dong-suk(Republic of Korea), who was attending UCLA in the United States, departed from Los Angeles on 14 January 1994, on the the Seonguja II(which means Forerunner). He is the first Korean who succeeded in solo world voyage. After completing it, he arrived in Busan on 8 June 1997.

The people who made the records of challenges



02

찬란한 도전

The
Great
Challenge

김승진 선장의 도전

단독·무기항·무원조요트 세계일주에 도전하다

The Challenge of Kim Seung-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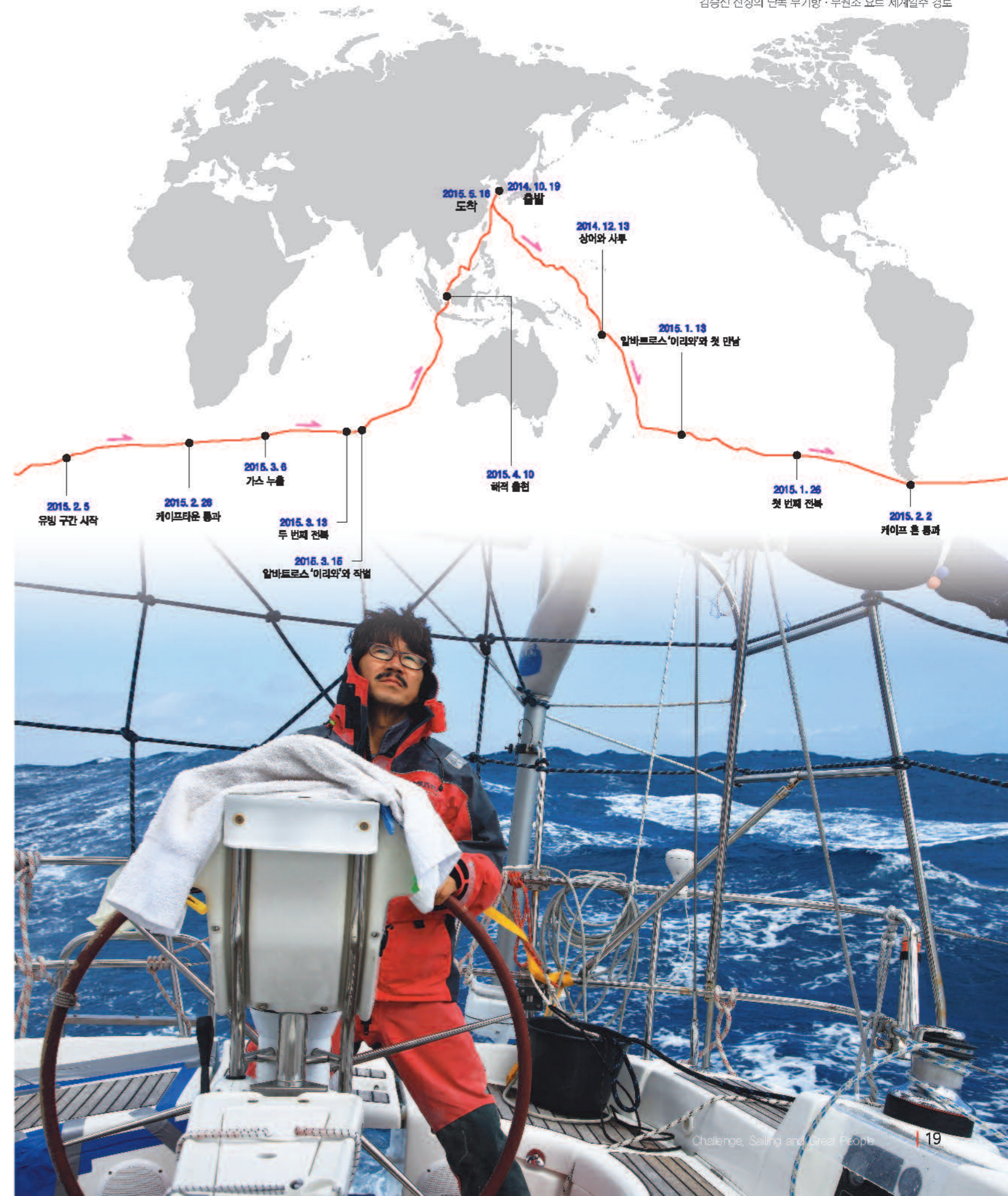
A Challenge to single-handed,
non-stop and unassisted circumnavigation in a yacht

김승진 선장은 한국인 최초로 단독·무기항·무원조 단독 요트 세계일주를 성공한 사람이다. 무기항·무원조 세계일주란 요트로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으며, 항해 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일주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항해이다. 김승진 선장은 중고 요트에 바다 달팽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라파니'호라고 이름 짓고 2014년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을 떠나 지구 둘레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항해하였다. 왜목항을 출발하여 일본 남단을 통과하고 태평양 동남쪽을 횡단한 후 뉴질랜드 해역을 지나 남아메리카 케이프혼을 지났다. 이후에는 남극해 주변을 항해하고 케이프타운으로 들어가 인도양 중간에서 북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승진 선장은 우연히 읽은 일본인의 요트 세계일주 항해기를 통해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한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김승진 선장도 가족과 직업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Kim Seung-Jin is the first Korean who succeeded in round-the-world single-handed yacht sailing, non-stop and without assistance. The non-stop and unassisted circumnavigation means that the yacht cannot be anchored in any ports and the sailor cannot receive any outside help during the sail.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 and the sailors who succeeded can be counted on the fingers of one hand in the world. Kim Seung-Jin named his used yacht 'Arapani', which means a sea snail in Korean, and left Waemokhang in Dangj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n October 19th, 2014 and sailed distances that is a little longer than the circumference of the Earth. His journey began at the Waemokhang, passed through the southern Japan, crossed the southeastern Pacific Ocean, and passed through the New Zealand and Cape Horn in South America. After that, he sailed around the Antarctic Ocean, then to Cape Town in South Africa, across the Indian Ocean and finally back northward to Korea.

He had cherished his dream since he accidentally read a book about a Japanese seafarer who succeeded in sailing across the oceans. Like any other ordinary people, Kim Seung-Jin also had his family and a job, but decided to do what he loves to pursue true happiness in his life.



김승진 선장의 세계일주 항해 에피소드

세계일주 당시 아라파니호의 내부

선실벽에는 레이더, GPS 등 항해용 전자장비를 설치하고 추가로 풍향 풍속계와 자동항해장치를 설치해 실내에서도 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침대에서 눈만 뜨면 각종 계기판과 항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Inside of the Arapani at the time of the circumnavigation.

I have installed the radar, GPS, and other navigational equipment on the wall. In addition, the anemometer and automatic navigation system are installed to control the ship in the room. It is a structure that allows me to watch various instrument panels and navigational conditions as soon as I wake up in a bed.

세계일주 기간 동안 소비한 식량

아라파니호에는 참치와 닭고기 통조림 100개, 건조김치 30kg, 2L 생수 450병, 호두 230알, 라면 100개, 건조채소와 건조육류, 탄산음료 60캔, 사과주스와 배즙 1상자씩 등이 실려 있었다. 209일간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항해 중에 낚시를 하고 채소를 길러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The Food consumed during the circumnavigation

On the Arapani, there were 100 cans of tuna and chicken, 30kg of dried kimchi, 450 bottles of 2L water, 230 walnuts, 100 packs of instant noodles, dried vegetables and dried meat, 60 cans of carbonated drinks, 1 box each for apple juice and pear juice, 6 cans of beer, 5 bottles of wine and 4 bottles of whiskey, and more.

These weren't enough for me to survive for 209 days, but I also did fishing and grew vegetables during the sail.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전

김승진 선장은 항해를 할수록 바다가 험악해 질 것을 예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위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챙겨 들고 탈출할 물품을 꾸렸다. 일명 서바이벌 키트. 큰 가방 하나를 펼쳐놓고 침수복, 자동조난신호기, 비상식량(초콜릿과 아몬드 등), 촬영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 위성전화, 조명탄, 휴대용 GPS, 콤팩트, 무전기, 낚시도구를 가방에 담아 준비하였다. 그리고 언제든 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 옆에 놓았다.

The life-threatening challenge

The sea is going to be rougher, I have to cope with every eventuality. I should pack necessities in advance, so I can immediately take the package and escape in case of emergency. This is called a survival kit.

I opened a big bag and started packing. I put a diving suit, an automatic distress signal unit, urgency food (chocolates, almonds and etc.), an external hard disk drive where my videos are stored, a satellite telephone, a flare, a portable GPS, water, a walkie-talkie and fishing gear in the bag. I put the package next to the doorway.

숫자로 보는 김승진 선장의 도전

Captain Kim's challenge in numbers

209

2014년 10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6일
까지 209일간 단독으로 항해하였다.

Single-handed sailing for 209 days,
from October 19th 2014 to May 16th 2015.

41,900

지구 한 바퀴보다 더 긴 41,900km를
항해하였다.

He sailed 41,900km that is longer than the
circumference of the Earth.

5,016

항해한 시간은 총 5,016시간이다.

The total time of his sailing is 5,016 hours

53

꿈을 이루기 위해 53세에 요트
세계일주를 시작했다.

He started circumnavigation on his yacht
at the age of 53 to achieve his dream.

339

김승진의 희망항해를 응원한 후원자는
339명(곳)이다.

339 people (organizations) supported
Kim Seung-Jin's journey.

14

2001년 요트 세계일주를 알게 된 후,
14년간 꿈을 키웠다.

After learning of sailing around the world
in 2001, he had cherished his dream
for 14 years.

2020

2020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무보급,
무기항 요트 세계일주 대회 벤데 글로브(Vendée Globe)에 또 도전할 예정이다.

He will again challenge the Vendée Globe,
a round-the-world single-handed yacht race, sailing non-stop and without assistance,
that will be held in France in 2020.

“ 김승진 선장의 도전에 대한 한마디 Captain Kim's words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끊임없이 도전을 갈구하던 사람이 있었다, 라고 기억되면 좋겠네요.”

“Just in case, What would be your last word?”

“I wish people remember me as a man who constantly craved a new challenge.”

망망대해에 있으면 지구가 거대한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지구(地球)'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행성은 '수구(水球)'다.
이 아름다운 물방울 위에 산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When I'm on the ocean, I feel like the Earth is only a gigantic water droplet. People
call this planet as the Earth, but in my opinion, it is more like a 'water sphere'.
How lucky we are to live on this beautiful water droplet!

”



나의 세계일주 도전!

• 이 "세계일주 놀이"는 1980년대 무렵 제작된 모드게임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품입니다.

4

금

18

우회전

36

금

1

원

2

반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도

10

도

11

도

12

도

13

도

14

도

15

도

16

도

17

도

18

도

19

도

20

도

21

도

22

도

23

도

24

도

25

도

26

도

27

도

28

도

29

도

30

도

31

도

32

도

33

도

34

도

35

도

36

도

37

도

38

도

39

도

40

도

41

도

42

도

43

도

44

도

45

도

46

도

47

도

48

도

49

도

50

도

51

도

52

도

53

도

54

도

55

도

56

도

57

도

58

도

59

도

60

도

61

도

62

도

63

도

64

도

65

도

66

도

67

도

68

도

69

도

70

도

71

도

72

도

73

도

74

도

75

도

76

도

77

도

78

도

79

도

80

도

81

도

82

도

83

도

84

도

85

도

86

도

87

도

88

도

89

도

90

도

91

도

92

도

93

도

94

도

95

도

96

도

97

도

98

도

99

도

100

도

18

우회전

36

금

1

원

2

반

3

도

4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

도

10

도

11

도

12

도

13

도

14

도

15

도

16

도

17

도

18

도

19

도

20

도

21

도

22

도

23

도

24

도